



통권29호

후원회소식

발행일/1994. 3. 11.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주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 전화 (02) 763-2606, 745-5604



- ▲ 민가협 주최의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에 함께한 양심수 가족들.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국내외적 목소리가 높은 때,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모든 양심수가 옥문을 나와 목요집회가 막을 내릴 날은 언제일까.

해방 새날을 위해

- 전사시인 김남주를 추모하며 -

이 기 형

삶은 짧아도 짧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 두 격언은, 바로
못 다 피고 애닦게 간 전사시인 김남주에 합당한
말이다
마흔 아홉 젊은 나이에 떠났지만
그의 시는
우리 현대문학사에
우리 해방투쟁사에 길이 남는다
김남주는
자기의 정신과 육체를
민족의 해방과 통일,
인류의 영원한 목표를 향해
아낌없이 남김없이 불태우며
이땅 1980~90년대를 밝혔다
언젠가, 옥중 김남주를 만나고 와서
박석무 의원은 말했다.
“..... 도대체 한국에는 시인이 없다는 거야.....”
남주의 고뇌와 기개를 알고도 남았다

나는 통쾌했다. 구미가 바짝 당기었다
내가 그의 신혼살림을 찾아갔을 때도
그가 내 누옥을 찾아왔을 때도
서로 눈빛과 웃음으로 말했을 뿐
군더더기말은 없었다
김남주는 억압받고 짓눌린 민중들의
해방과 평등을 ‘늦가을 들녘 마지막 남은 사과
한개를 나누어 먹자’고 외쳤다
김남주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찢겨진 겨레의
통일을 ‘조국은 하나다’라고 절규했다.
김남주는 반세기 동안 조국 남녘땅을 틀어쥐고
좌지우지하는 외세를 미워했다 배척했다
그는 지금
광주 망월동 성지에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다
못 열사 투사들과 어울려 두런두런
조국의 해방과 통일을 토론하고
자기의 혁명시를 읊기도 하며
전열을 굳건히 가다듬고 있다
동터오는 새날을 위해

(1994. 3. 10 독립문 옆에서)

우리들의 연인, 우리 모두의 아들

편집부

우리들 모두 그렇게도 선생님의 건강을 빌었는데도 1994년 2월 14일 김남주 선생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다. 빈소를 찾으신 장기수선생님들과 후원회원들, 장례기간중 음식준비를 해주신 민가협 어머니들,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듣고 30분도 넘게 전화로 울먹였다는 미국에 있는 후원회원... 모두가 가슴을 누르는 듯한 슬픔과 다짐으로 선생님을 보내드렸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생님의 뜻을 온몸으로 이어받는 것과 선생님이 생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을 우리의 가족으로 맞아 함께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후원회원들의 마음을 안고 박광숙씨와 아들 토일이를 만나러 가는 길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목동 아파트에 들어서니 외사촌과 놀고 있던 토일이가 가장 먼저 우리를 맞았다. 오늘 유치원 입학식을 했다는 토일이는 무척 귀엽고 푹푹하게 생긴 사내아이였고, 무엇보다도 돌아가신 선생님과 너무도 닮아서 절로 웃음과 눈물을 자아내게 했다.

박광숙씨는 무척 야위고 초췌한 모습이었다. 엄마가 누워있는 것만 봐도 질색을 하는 토일이 때문에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한채 억지로 기운을 차리려 애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자꾸만 처지는

몸과 마음때문에 부대끼고 있는 것 같았다. 그토록 깊은 사랑으로 함께 했던 사람의 죽음을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힘겨울지 가슴이 저러왔다. 투사 김남주에게 힘을 주는 원군이면서, 한편으로 수인 김남주를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였던 박광숙씨. 그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남민전 사건으로 김남주 선생님과 함께 구속된 이후 "옥바라지를 해주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기다리겠어요,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라며 시작한 옥바라지 끝에 그의 아내가 되었다. 선생님의 시 곳곳에 박광숙씨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안타까움이 담겨있었다.

광숙이!

그대가 아녘다면

책갈피 속의 그대 숨결이 아녘다면

내 컵가에서 맴도는 그대 입김이 아녘다면

오 사랑하는 사람이여

지금의 내 가슴은 얼마나 메말라 있으랴

지금의 내 영혼은 얼마나 황량해 있으랴

세계를 잃고 그대 하나를 내 얻었나니

그대 이름 하나로 우주와 바뀌나니

나는 만족하나니

지금은 다만 그대만이 그대 사랑만이

내 안에 가득한 행복이나니.

-지금은 다만 그대 사랑만이- 중에서

10년의 옥살이 끝에 89년 선생님과 박광숙씨는 결혼하셨다. 5년동안 남들 사는 것처럼 살면서 아들 토일이를 가졌다. 토일이는 아빠가 다시는 올 수 없는 하늘나라로 가신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 엄마가 누워있으면 “엄마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라고 말해서 박광숙씨의 마음을 더욱 기막히게 한다. 한밤중에 베란다에 나가서 “아빠 안녕!”이라고 혼잣말을 하는 것을 보기도 하였고, 유치원 입학식때 입을 옷을 사러 가는 버스속에서 아이가 눈물이 가득 고인것을 보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가 찾아갔을때 토일이는 지나칠만큼 명랑하고 쾌활했다. 아이가 아이답지 않게 떼도 쓰지않고 의젓하게 견디어 내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 아프시다는 박광숙씨는 그래서 당분간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아이와 지내겠다고 하신다.

토일이의 재롱때문에 한동안 웃음이 가득했고 박광숙씨도 조금은 여유있게 이야기를 나눴다. 김남주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전 24시간의 혼수상태로 계시다가 깨어나셨다고 한다. 박광숙씨는 남들이 아무리 포기하라고 해도 선생님을 보낼 수가 없었는데, 혼수상태로 계신 선생님을 뵈니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는것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겠구나”하며 처음으로 체념이 되더라고 하셨다. 그래서 선생님이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신 뒤에 선생님께 편안하게 가시라고 말하셨고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신다. 선생님은 끝까지 또렷한 눈빛으로 말씀을 하였고, 특히 토일이를 건강하고 평범하게 키워달라고 부탁하시고

눈을 감으셨다고 한다.

박광숙씨는 우리에게 많은 분들이 큰 사랑과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돌아가실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돌아가신 지금도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실은 아직도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생사람을 망월동에 묻고 돌아온 것 같다고 하시는 박광숙씨는 사실은 집보다 하늘나라가 더 좋아서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신거냐고 묻는 토일이보다도 더 선생님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고 계신 듯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치 선생님이 옆에 계신듯 그렇게 살아가실 것 같았다.

사람들이 많아서 북적거리는 것이 좋아서인지, 토일이는 유치원 입학식때 입은 새 옷과 새 신발을 자랑하며 연신 웃고 떠들었다. 토일이를 볼때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라는 표현이 정말 이 아이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생각되었고, 이렇게 이쁜 아이를 두고 눈을 감아야 했던 선생님의 마음이 떠올라 목이 메었다.



▲ “엄마,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라고 엄마를 달래주는 예쁘고 맑은 눈빛의 토일군.

하지만 이렇게 어려서부터 아빠없는 아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 가슴아프다는 박광숙씨의 걱정은 기우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믿어 본다. 비록 김남주 선생님은 아니지만 선생님의 시를 사랑하고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되고, 가족이 되어 함께 마음쓰며 살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무런 위로의 말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채, “누나 안녕”이라고 밝게 웃는 토일이에게 “잘있

어"라고 인사하고 집을 나섰다. 아직도 비는 내리고 있었지만, 처음 집을 찾아갈때의 무거움은 아니었다. 앞으로 몸이 추스러지면 토요일과 후원회 산행도 함께 다니겠다고 하시는 박광숙씨가 오히려 옆에서 맥없이 무거워만 하던 나의 마음까지 북돋아 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선생님은 가셨지만, 우리는 선생님의 시 정신과 투사로서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 민중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분단과 외세와 매국을 저주하신 김남주 선생님. 그 찌렁찌렁한 목소리와 칼날같던 눈빛, 따뜻하고 강렬했던 그분과의 대화, 모든 것을 이제 우리들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다시 살려내야 한다. 그리고 선생님 병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그분의 시, 감옥에서 목숨을 바쳐 쓰신 시들을 노래하자. 선생님이 그토록 바라던 봉기의 창끝이 되는 시를.

나는 나의 시가

오가는 이들의 눈길이나 끌기 위해
최신유행의 의상 걸치기에 급급해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나는 바라지 않는다 나의 시가

생활의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순수의 꽃으로 시가에 꽃혀

호사가의 장식품이 되는 것을

나는 또한 바라지 않는다.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형제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나의 시가

한과 슬픔의 넋두리로

설움깊은 사람 더욱 서럽게 하는 것을

나는 바란다 총검의 그늘에 가위눌린

한낮의 태양 아래서 나의 시가

탄압의 눈을 피해 손에서 손으로 건네지기를

미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배부른 자들의 도구가 되어 혹사당하는 이들의 손에 건네져

깊은 밤 노동의 피곤한 눈들에서 빛나기를

한 자 한 자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그들이 나의 시구를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뜨거운 어떤 것이 그들의 목젖까지 차올라
각성의 눈물로 흐르기도 하고
누르지 못한 노여움이 그들의 가슴에서 터져
싸움의 주먹을 불끈 쥐게 하기를

나는 또한 바라 마지않는다 나의 시가

입에서 입으로 옮겨져 노래가 되고

캄캄한 밤의 꺾가에서 밝아지기를

사이사이 이랑 사이 고랑을 타고

쟁기질하는 농부의 들녘에서 울려 퍼지기를

때로는 나의 시가 탄광의 굴 속에 묻혀 있다가

때로는 나의 시가 공장의 굴뚝에 숨어 있다가

때를 만나면 이제야 굴욕의 침묵을 깨고

들고일어서는 봉기의 창 끝이 되기를.

- 나는 나의 시가 전문

김남주 연보

1946. 1. 16 전남 해남 빈농의 집안에서

3남1녀 중 둘째 아들로 출생.

1964. 3. 광주 제일고등학교 입학.

1969. 3. 전남대 영문과 입학.

1973. 2. 반유신 활동, 체포, 투옥. 8개월만에 석방.

1978.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의 전위조직인 민주투쟁국민위원회 가입.

1979. 남민전 조직원으로 활동 중 체포, 구속. 이후 징역 15년 확정.

1988. 형집행정지로 투옥 이후 만 9년 3개월만에 석방.

1989. 결혼

1994. 2. 13 타계

시대를 진료하시는 '총각 선생님'

편 집 부



40여년을 헤어져 살아온 이산가족이 중국 연변에서 비밀 상봉하는 놀라운 장면이 6일 밤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방영되었다. 그중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이야기 한 토막이 있었다. 북에서 임종을 앞둔 어머니 -가족 모두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병약한-가 남쪽에 그리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그 길로 일어나 물도 받아 마시고 죽도 넘겨서 며칠 만에 걸어다니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 어머니에게 삶에 대한 애착을 불어넣어준 것은 오로지 아들을 만나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는 절절한 의지였다. 특히 그 대목이 인상적이었던 까닭은 이세균 선생님의 어머니가 겹쳐서 떠올랐기 때문이다. 평생을 기다리던 아드님이 출소하기 불과 2년 전에 세상을 떠신 그분의 한이 얼마나 뼈에 사무쳤을까! 단지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 한 조각으로도 소생할 수 있었던 북녘땅 어머니를 보니, 사랑하는 아들을 지척에 두고도 그놈의 식창살이 가로막아 손 한 번 쥐어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신 한이 얼마나 깊을런지 목이 메인다.

이세균 선생님은 당신의 어머니께서 생전에 보내신 편지를 일일이 옮겨 적은 공책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다. 공책의 앞부분은 어머니께서 직접 쓰셨지만, 해가 갈수록 편지 온 횟수가 띄엄띄엄 줄더니만 돌아가시기 전에는 손녀딸이 대필한 것으로 바뀌었다. 워낙 연세가 드시기도 했지

만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셋째 아들을 쉬이 만날 기약이 없었던 것이 어머니의 기력을 점차 빼앗았지 않았나 싶다.

"내가 염려하므로 아무런 효과도 없지만 마음 한 구석에 잊지 못할 한 맺히고 한스러운 생각을 잊으려고 노력하지만 잊혀지질 않는구나.

내가 어려서부터 불량아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너를 항상 기특하다고 칭찬하시며 노후에는 세균이와 살겠다고 하시더니 이 괴로운 세상을 떠나셨으니 편하고 복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일로 네 나이 거의 60이 가까운데도 독신으로 세상에 빚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신체가 쇠약해지기 마련인데 보약이라도 먹어야 하는데 보약을 먹을 형편도 안되니 들깨 기름을 짜서 마시도록 하여라……."

〈79. 3. 15 청주보안감호소로 온 편지〉

이렇게 애뜻하던 어머니의 임종도 못보고 장례식에도 가볼 수 없었던 선생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을런지.

"그때 말여. 울기도 많이 울었지."

담담하게 말씀하시면서 손으로는 연신 공책을 쏘아 보셨다. 아무 말씀 안하셨지만 애끓는 사모곡(思母曲)을 부르시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마르고 긴 얼굴, 마치 말하지 않아도 네 속을 다 안다는 투로 장난스럽게 빛나던 선생님의 눈,

좌증을 다 웃겨놓고도 시침을 떼시던 이세균 선생님은 그러고 보니 꽤 유쾌한 분이셨는데도 활짝 웃는 모습을 자주 뵙지는 못한 것 같다. 바람에 물결이 일렁이듯 잔잔하게 슬픔도 노여움도 낮은 어조로 무덤덤하게 표현하셔서 그 속내를 헤아리기가 어려웠다.

“자랑스런 뭐 거시기는 없으니까 들려줄 얘기도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제기동 민중탕제원으로 찾아 뵈었을 때 첫마디도 그러하셨다.

1921년 12월 18일 전북 장수에서 태어난 선생님은 올해 일흔 셋의 총각이시다. 아버지가 측량 기사여서 서너 살 때 고창으로 이사를 했고 그곳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위로 형님이 두 분, 아우가 하나 있었는데 4형제 모두 민족의 현실에 일찌감치 눈을 떴다.

“인자 잉, 남동생 하나는 입산해서 죽었어. 당시 상업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왜 잡혔나 하면 말여. 1951년 10월 감이 노릇노릇할 때 입산했는데 함께 산한 친구가 잡히는 바람에 수색대의 습격을 당하여 죽었다고 그라.”

선생님이 광주수용소에 있을 때 일이었다. 시대상황 탓에 아무도 시신이 있는 데에 가보지 않은 것이 몹시 마음에 걸리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아우를 잃은 게 전부가 아니었다. 나 어린 아우가 먼저 떠올랐을 뿐이지, 해방이후 열렬한 운동가였던 둘째 형도 이미 유명을 달리한 뒤였다.

둘째 형은 연희전문 수물과를 1년 다니다 학비가 모자라 그만두고 일본으로 고학을 하러 가다가, 공채 검사를 당해 2년동안 형무소 살이를 하기도 했다. 그 형의 권유로 해방이후 운동에 뛰어들게 된 선생님은 집에서 ‘도배쟁이’라고 불리웠다. ‘2000만 달러 차관 반대’ 뼈라를 부치려 맨날 풀 썩가지고 다녀서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둘째 형은 전주시 공청 위원장, 도청년부 부장을 지내면서 형무소를 들락날락 했는

데, 49년 3월 대구시당에서 일을 보던 중 발각되었다. 여순항쟁 이후에 남로당 조직원이라 하면 재판도 없이 즉결 처분했는데 간부였던 둘째 형도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

그 때 선생님은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결성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북행중이어서 형이 붙잡혔다는 소식만 들었을뿐 아무 일도 못했노라고 하셨다.

그후 선생님은 북에서 회령의 민족 보위성 소속 군관학교(대장 오진우)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해 11월 유격대원으로서 강원도 화천에 주둔하고 있었다.

“내가 여러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말이며, 이 때도 큰부대가 조직되어서 태백산맥을 타고 오던 길이었어. 한밤중 수색대에 이어 본대가 다 지나간 뒤에 기관총 소리가 요란했어.”

갑작스런 습격에 뿔뿔이 흩어졌던 대원들이 모였는데 여러 사람이 죽었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수류탄 파편 하나 맞지 않고 멀쩡했어.”

날이 밝자 본대를 찾아 떠난 사람들은 강릉부근에서 매복에 걸려 잡히고 빠져 나간 사람들은 대관령에서 싸우다 죽고 일부만 북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선생님도 잡혀서 밤에 서울로 보내졌는데,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잡히면 즉결처분이었다고 한다. 아슬아슬하게 죽음을 비껴간 것이었다.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재판을 한 번 받았어. 그러다 전쟁이 일어나 이태원 육군 형무소에서 나왔지. 용산 전매청 뒤 친척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하룻밤 자는데 팡 하는 소리가 나고 비는 쫄쫄 오고 그려.”

마침 「역사 앞에서」를 읽고 있던 터라 6월 27일 일기를 보니 정말 한밤내 비가 오고 한강 다리가 끊어지는 얘기가 나왔다. 묘한 기분이었다. 같은날 서울 하늘 밑에 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동시에 듣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진보적 민족

주의자로 인민공화국 치하의 관료주의를 비판했던 김성칠 선생의 「역사 앞에서」와 지금 생생한 목소리로 그와는 다른 입장의 이야기를 들으니, 역사란 거대한 강물처럼 모든 것을 끌어안고 흘러 간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선생님은 형무소 생활로 축난 몸을 추스릴 새도 없이 서울시 인민위원회 유격대로 편입되어 곧장 대전, 진주, 마산까지 인민군과 전선을 따라 내려갔다. 북녘 맨꼭대기 회령에서 남녘 끄트머리 마산까지 전 국토를 누빈 신 셈이다.

“선생님, 삶과 죽음이 찰라에 결정나는 그 때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워낙 바쁘고 다급한 상황이니까 별로 그런 생각도 안 들드마. 한번 조직에 몸담게 되면 끝까지 이탈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위험을 느낀다고 떨어져 나가면 안된다고 생각했지.”

1950년 9월 초순경 마산지역 고지. 날이 밝을 무렵 개인호를 파고 있던 선생님은 갑자기 오른 쪽 뺨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고지 점령을 하기 위해 밑에서 올라오던 미군들의 “커몬 커몬” 소리를 들은 것 같았는데 카빈총탄이 오른쪽 코 바로 옆을 뚫고 귀 밑으로 지나갔던 거다. 손과 얼굴에 부상을 입은 후에도 선생님은 수류탄 두 개를 뽑아 뿔 수 있는 한 멀리 내던졌다고 한다.

“총알이 조금만 빗졌어도 큰일 날 뻔 했네요. 얼른 보아서는 전혀 표시도 안나는데요.”

선생님은 내 호들갑에 멋쩍게 웃으셨다.

“인자 일주일 걸려 전주로 후송되었고 치료를 받았지. 그 곳에서 환자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었어. 그 후 후퇴하게 되었는데 퇴로가 막혀 다시 전주시당 조직부 성원으로 지하활동을 하다가 51년 3월에 잡혔어.”

“그때 기억나는 일 좀 말씀해 주세요.”

“국군이 휴가 도중에 입산한 경우가 있었어. 북에 가서 동족에게 나쁜 짓 하는 걸 보고 혐오

감을 느꼈는지는 몰라도 에프원(M1) 총 갖고 국방군 옷 입은 채 빨찌산에 들어 왔었어.”

재판에서 무기형을 받았지만 15년으로 감형되어 1966년 7월에 출소했었지만 75년 사회안전법으로 다시 15년간 불법 감호되었다가 89년 그 악법이 폐기 되자 청주보안감호소에서 비로소 세상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밖에는 어머니도 계시지 않았고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으니 아내와 자식이 맞아줄 리 없었다. 흰칠한 키에 단아한 용모, 부드러운 성격인 선생님께서 어제 한 번도 결혼하지 못하셨나고 우문을 여쭙니 명쾌하게 말씀하신다.

“한창 일할 때는 결혼은 생각도 안 했고, 잠시 사회에 나왔을 때는 집안도 어려웠고, 당국의 철저한 반공정책으로 발 붙일 곳이 없는 데다 일정한 수입이 없으니 말여 여기저기 돌아만 당졌어. 서울로 올라와 번역을 한다고 했는디 원고료도 떼어먹히기도 하고 말여. 세월이 하도 막막하니까……”

허허롭게 웃으시는 선생님을 뵈니 절제된 말씀 속에 지난 세월의 아픔이 배어나는 듯 했다. 물론 선생님께서는 자신은 큰 어려움을 겪은 게 없다고 강조하시지만 혈육과 육친의 뜨거운 정을 주고받을 기회를 송두리채 빼앗긴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내색하지 않으시리라. 그저 단조롭고 느린 말투로 “나는 말여 별로 내세울만한 거시기가 없어.” 하실 것이다.

그리고 북한산이고 도봉산이고 산길에서 맥아리없이 처진 젊은이가 있다면, 독학하신 한의학으로 맥을 짚어주실 것이다. 말씀을 많이 하시기 보다는 귀기울여 들으시다가 청량한 웃음을 주는 재치있는 한 말씀을 침을 놓듯 툭 던지실 것이다.

후원회원들이 가장 따르고 좋아하는 선생님, 선생님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참으로 따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 싶다.

하나가 되어 통일을 꿈꾸는 하루

이 지 은 (31세 · 학원강사)

“씨 팔, X됐다 X됐다.”
1980년 서슬퍼런 군사법정에서 자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혼자 내뱉은 말이다. 그 후로 그 용기와 의연함이 그가 만들었던 조직과 함께 후배 투사들에게 영웅적으로 회자되곤 했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과 김남주.

아직 눈이 채 녹지않아 흰 수의를 둘러 쓴 듯한 북한산을 많은 김남주들이 오르고 있다.

이세균 선생님을 비롯해 조창손, 유종인, 김중종, 왕영한, 함세환 선생님들이 앞장서고 우리 후원회원들은 앞서간 선배동지들을 뒤따르듯 잇따른 민족 운동진영의 비보를 듣고 일어서는 씩씩한 발걸음으로 그 뒤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후원회 행사 때마다 늘 그러했듯이 오늘도 비가 내릴거라는 일기예보를 비웃는 듯 하늘은 맑고 봄날씨 같은 따뜻함마저 느껴진다. 언제 보아도 그럽고 반가운 회원들은 언니, 형 부르며 ‘함께가자 우리 이 길을’이라는 김남주의 시처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47명 회원들이 산을 오르고, 아직 눈이 녹지않아 미끌미끌 조심스러운데 한쪽에서 드디어 ‘파당!’ 한다. 등산화를 신지 않으신 왕영안 선생님이다. 젊은이들이 부축할 세라 어느새 일어나 허허 웃으시며 눈을 터시는

데 가슴이 조금 아프다. 주차장 일로 바쁘실 선생님의 일상이 스치면서 등산화를 하나 마련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중턱쯤 올랐을까, 어느새 상계동, 중계동 고층 아파트 단지가 저아래 보이고 갑자기 확 트이는 시야가 가슴까지 후련하게 한다. 산꼭대기 헬기장에 올라 땀으로 젖은 몸을 시원한 바람으로 식힌 뒤 조금 내려와 점심식사 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아늑한(?) ‘호랑이 굴’을 찾아 내려갔다. 그러나 앞서가던 이희두 회원이 넓은 터를 발견하여 자리를 풀게 되었다. 김밥 경쟁이라도 하듯 각자 정성껏 준비해온 김밥이 갖가지 모양인 것도 재밌지만 우리 농산물 직거래 관계일을 한다는 네 명의 회원들이 싸운 도시락은 그 양에서나 질에서나 과연 으뜸이었다. 빼앗길 세라 “아유, 맛없어. 어쩔 이렇게 맛없을 수가”하며 먹는 소리가 어서 먹어보라는 호들갑인 것도 같고 결국은 모두 돌아가며 맛을 보고 감탄을 연발하며 더 없냐 한다. 1년이 넘게 산행을 다녔지만 이번 산행만큼 자기소개 시간이 참신했던 적이 있었을까. 20명 정도 되는 신입회원들로부터 인사를 받고나니 그 신선함에 절로 생기가 돈다.

이어서 우리는 문 목사님에 이어 어이없게도

혜장암으로 지난 2월 13일 새벽 우리 결을 떠나
신 고 김남주 투사에 대한 추모시간을 가졌다.
권오현 선생님의 동지 김남주에 대한 회고와, 이
시영 선생님의 추모시, 김남주 선생님의 시 '사
상의 거처'가 낭송되는 동안 후원회원들은 간간
히 훌쩍이며 그를 떠올렸다. 나는 92년 우리 후
원회 여름 수련회에 참석해서 놀이중에 불려나가
노래하던 그 분의 모습과 그해 10월 기행동아리
에서 해남으로 문학기행 갔을 때의 모습들이 떠
올랐다. 시인이자 하기엔 오히려 농부같고 투사
라 하기엔 너무 부드러운 잘 웃는 얼굴, 자신의
시를 강연하던 내내 우리들이 마시는 막걸리와
두부김치 때문에 참느라 혼났으며 막걸리 한사발
을 들이키던 진짜 막걸리 같은 사나이, 92년 송
년의 밤 많은 통일일꾼 선생님들의 성화로 부끄
러이 일어나 '자유'를 읊조리던 겸손함...

그대로 그때마다 그는 늘 다른 자리에 있었지
만 언제나 그 웃음, 그 모습은 같았다. 입을 다물
고 있어도 그의 입에선 구성진 목소리로 "만인을
위해 노력할 때 나는 자유다"라 읊어주는 듯 했

고, 말이 없어도 깊게 빛나는 그의 두 눈은 우리
에게 어서 조국통일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었다.

평생 시만 글적여도 나오지 않을 우리들의 목
소리를 너무도 정확하게 표현해 주던 민중의 대변
인. 시는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시
인의 의무는 만인에게 우리 사회의 모순을 폭로하
고 민족해방의 길로 나아가자 외치는 것이라며 자
신을 시인이자 부르지 말라던 혁명가 김남주는 그
러나 지금 우리곁에 있지 않다. 이제 그는 우리
결을 영영 떠나고 그렇게 흐느끼는 우리들 어깨위
로 부쉬져 내리는 그의 시와 그의 투혼이 수많은
김남주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고 있었다.

마침 평소 존경했던 유인하 목사님 교회연에
합류하게 된 우리 일행은 자연스럽게 뒷풀이가 되
었다. 푸짐한 음식과, 통일운동의 노 선배님들과
함께 진도아리랑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모두가 한
덩어리되어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시대의 수많은 청년 문익환과 시인 김남
주가 저 분들의 뒤를 이을 것이고 그리하여 조국
통일의 그날은 꼭 오리라. 수많은 일꾼들의 값진

죽음이 있고, 피를 먹고
자라는 민주주의가 커가고
그 모든 아픔을 민족해방
과 조국통일을 향해 한 몸
으로 엮어내는 우리 민족
의 끈질긴 투쟁의 역사가
있으니.



◀ 기록적으로 과반수는 죽혀
되어보이는 신임회원과
함께 오른 북한산 산행.
산마루에서 모두 함께
봄바람처럼 웃고 있다.

오랜 상처 아무는 그날

편 집 부

부 두의 외곽을 따라 돌며 달리는 차안에서 바로 전 전화속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별로 반겨하지 않는 듯한 느낌에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그날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36년째 복역중인 윤용기 선생님(69세)의 가족을 찾아가는 길이었다.

인천의 찬바람을 느끼며 시원스레 트인 도로를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후덕한 모습의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와 맞으셨다. 선생님의 만며느리였다. (노범숙씨·46세) 조금은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나누고 따라 들어간 집안에서 소박하지만 깔끔한 가족들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왜 그 얘기를 하라 합니까? 옛날 생각만 하면 지금도 머리가 흔들려요. 여기, 이 자리에 고름이 다 껴 었다우.”

지난 세월 이야기를 들려 주십사 하는 부탁에 고개부터 설레설레 흔드셨던 윤용기 선생님의 부인 서봉신님(69세). 편집팀을 마냥 불편해 하시는 모습에 가족들이 겪은 그간의 설움과 고생을 알 수 있었지만 단힌 마음의 완고함에 조금은 난감하였다.

윤용기 선생님은 경기 강화도의 빈농가에서 출생하셨다.

6·25 당시 인민군 후퇴시에 소속기관과 함께 후퇴하여 입북하였다가 1959년 7월에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다. 임무는 ‘평화통일을 위한 조국전선 호소문’ 실천을 위해서였는데, 착수도 하지 못한채 체포되었고 1960년 무기징역으로 형을 확정받았다.

“내, 왜정때 18세에 결혼해서 그 양반하고는 딱 7년을 살았어요. 고향에서 농사지으며 살다가 6·25가 터지고나서 헤어진 후로는 몇년간 소식 하나 못듣고 살았다우. 6살, 3살, 1살 자식 3남매 거느리고 살았는데 조반 먹으면 점심걱정, 점심 먹으면 저녁걱정, 어유, 생각만 해도 정말 지겨워. 좌우간 그렇게 살았는데 몇년후에 그 양반이 잡혔다는 연락하나 달랑 옵니다. 그게 다요.”

이제까지 선생님과 관련된 일들로 마음고생 많으셨던 듯이 지금도 그 일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하나도 반갑지 않노라 말씀하시고는 입을 다무셨는데, 손녀의 과일깎는 솜씨를 칭찬하며 이런저런 일상사를 얘기하는 도중에 분위기는 상당히 부드러워졌다.

“큰아들 결혼할 때까지는 강화에서 살았지. 큰애 결혼도 우리가 그래도 악하게 살지는 않았으니까 마

을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지요. 그 후 아들 부부는 인천으로 이사를 가고 난 얼마간 강화에서 농사짓다가 나중에 인천으로 올라왔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야 정말 가진게 뭐 있나. 우리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나마 살림을 다 일으켰지요.”

끝내 고생스런 지난날을 회상하지 않으시려는 듯 며느님의 칭찬으로 말쑥을 돌리셨는데, 옆에서 다소 굳이 앉아 이야기를 듣다 자신의 칭찬에 손을 내저으시는 며느님은 지금까지도 월급 40만원의 공장일을 다닌다고 했다.

“처음엔 이 집안으로 시집온 것을 무척 후회했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신 줄은 첫에 넣고 나서야 알았지요. 없는 사람들 고생하는 나이 뭐겠어요. 다 애들 출세하는 것 보자는 건데, 기록이 끝까지 따라다녀 취직도 제한이 많다고 하니, 앞이 캄캄해질 수 밖에요.”

그런 피해의식에는 이유가 있었다. 친정 여동생의 결혼에까지 경찰이 조사를 나오는 바람에, 소식이 전해질세라 쉬쉬했던 친정집에까지 소란이 이는 등, 한동안은 계속 움츠리고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인천에 와서는 한동안 모든 것을 잊고, 삶의 기반을 닦으며 지냈다고 한다. 그러던 중 후원회 선생님의 권고로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대전교도소로 면회를 가게 되었다.

“물론 아버님이 무척 좋아하셨어요. 아드님하고도 얼마만의 상봉인데요. 기뻐하시는 모습이 너무도 역력해서 가슴이 아팠지요. 재작년 방학때는 애들 셋을 데리고 갔어요. 할아버지가 뭐든지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하는 그곳 직원들의 말을 듣고 큰애가 그래요. ‘엄마, 우리 할아버지가 그리 훌륭하신지 몰랐어요’라고 구요.”

윤선생님은 73년 전향공작반 설치후 회유, 첩박, 구타 등 온갖 형태의 전향공작을 집중적으로 받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다. 그때의 테러로 인한 자신의 불구를 독학으로 의학을 공부해서 치료하였고, 성격이 다정하셔서 항상 주위분들을 살피신다고 한다.

“선생님이 그리 미남이시라면서요?”하고 부인에게 물으니, 조금은 풀어진 분위기 탓인지 “그래 미남이라 이제까지 대통령 매달렸어.”하고 우스개소리도 하신다.

“내색은 안해도, 어머니가 그리 고생하시는 것 보면서 그이도 아버님이 무척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아요. 남에게 썩썩한 성격은 아닌데 지난 추석때 면회가서는, ‘일 잤다 와서도 인사드리고 아버지 소리도 자주할 수 있도록 빨리 나오세요’ 하잖아요.”

큰 아드님은 몇년전에 건설현장에서 다친 휴우증으로 3번의 수술을 치렀는데, 아직도 몸이 불편하다고 했다. 첫 면회 때는 겸연쩍어 하며 몇마디 못하곤 했는데 이제는 부자간에 말쑥도 많이 늘었다고 한다. 이제는 예전과 달리 세상도 많이 바뀌어서 그렇게 쉬쉬하고 움츠리고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쑥드리니 부인이나 며느님 모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모습이다. 선생님이 아직 나오시지도 못하고, 장기수 분들에 대한 올바른 처우를 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없으니,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은 스스로도 우습게 여겨졌다.

“금방 나온다는 말, 난 안믿어요. 그런 얘기가 벌써 몇해째인데,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한들 믿을까. 나 죽기전에만 나오면 다행이지요.”

선생님이 곧 나오실 것 같으니 염려 마시라는 말씀에, 부인은 다시 완고해지셨다. 몇년간의 기대가 계속 무너졌던 실망 때문이리라.

인사를 드리고 돌아나서는 길에 며느님이 함께 나서며 한마디 덧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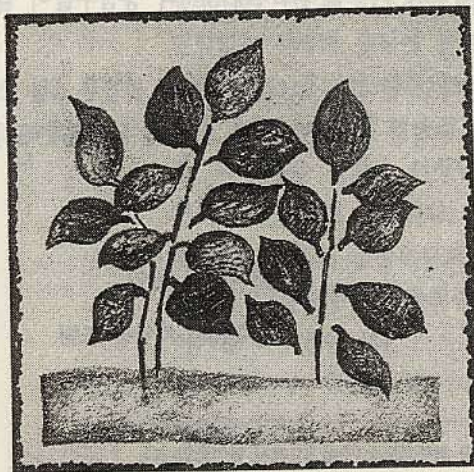
“그래도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리시는데요. 아버님이 나오시기만 하면 쉬엄쉬엄 좋은데 구경도 다니시고 아이들 공부도 가르쳐주시고 하시면 오죽이나 좋을까요. 살림은 없어도 마음은 편하게 모실 수 있으니 어서 어서 나오시기만 하셨으면 합니다.”

‘앞줄 사형 뒷줄 무기’라는 식의 재판이 성행하던 우스운 시대가 있었다. 북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채 하려던 일도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서도 몇십년의 형을 내려 사람들과 격리시켰던 이해할 수 없는 시대가 있었다.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겐 감시와 협박으로 가족들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었던 용서받지 못할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그 우습고도 이해 못할 시대의 잘못과 상처들은 계속 방치되고 가리워진 채 오늘로 이어져 눈물은 눈물로, 그들은 그들로만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남편을, 아버지를 타의에 의해 원망하며 살아왔던 가족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할아버지를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그날은 언제일까.

훨씬 다감해진 모습으로 ‘참여 못해 미안하지만 계속 수고하라’ 인사하는 부인과 가족들의 모습에서 그 오랜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음을 보았다.



김지현에게 따뜻한 사랑을

한국전쟁 중 빨찌산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10년의 옥살이 끝에 석방된 고 김병주 선생님의 장녀인 김지현(29세)씨를 알고 계십니까?

이인모 선생님이 병중에 누워계실 때 병상에 머물며 선생님을 간호하던 김지현씨가 지금은 결핵성 부골증으로 한양대 병원 10층 22호실에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관심을 기다립니다.

한날 한시에 양심들이 일제히 옥문을 나서는 꿈을

차 익 중

선 생님, 안녕하십니까?

모쪼록 올 한 해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 목사님과 김남주 시인을 새해 벽두부터 눈물로 물어야 했는데, 이제는 제발 더 이상 어머니들의 눈물이 흐르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내년이면 분단 47년이요, 해방 50년인데, 바라건데 금년이 통일의 초석을 놓는 힘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사노맹 사건으로 5년형을 복역중입니다. 이곳 청주에서는 비교적 많은 형기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기 전에 5개월여 살았던 광주 교도소에서는 진정 장기수·장기형이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혈기방장한 청년을 초로의 주름진 모습으로 바꾸어 놓는 분단의 창살, 더 이상 이런 비극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백의 머리칼이시면서도 소년의 천진난만함을 잃지 않고 계시는 청청한 젊은老선배님들의 모습은, 세월도 인간을 녹슬게 하지 못한다는 또 다른 감동과 희망의 모습이었습니다.

'경기가 바닥이어서 탈출만 남았다' 고들 한참 증권가에서 떠들곤 했는데, 정말로 우리 통일인사들 진보인사들은 이제 성장하고, 더 자유로워지는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한 날 한 시에 300여 양심수들이 일제히 옥문을 나오는 꿈을 꾸다면 헛된 망상일까요?

이제 봄입니다. 3월 25일부터 청주일대는 진달래가 만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꽃들은 4월 초부터 봉오리를 연다고 하지요. 이곳에서야 그 꽃 잎파리 하나 구경할 수 없으나, 온 산하가 울긋불긋해지는 꿈을 꾸며 반가운 花信을 전해드립니다.

94년 2월 26일

청주에서 차익중 드림

차익중님은 사노맹 사건으로 92년 구속되어 5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청주교도소(수번 81)에서 복역중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 1 : •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인 양심선언 군인 박석진씨 징벌에 항의하는 민가협 어머니들의 농성이 영등포교도소 소장실에서 있었습니다.
- ‘우루과이라운드 재협상 쟁취, 국회비준 거부와 농정개혁을 위한 전국농민대회’가 여러 농민단체, 시민, 학생 등 20,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학로에서 열렸고 탑골공원까지 거리시위를 벌였습니다.
- 2 2 : • 영등포 교도소에서는 농성이 계속되었으며 3일 아침이 되어서야 소장의 사과와 징벌 해제로 일단락되었습니다.
- 경찰은 농민대회와 관련하여 전농의 윤정석 의장 등 15명에 소환장을 발부하고 농민 윤상영씨 등 2명을 구속하고 85명을 즉심에 넘겼습니다.
- 2 3 : •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가 탑골공원에서 2시부터 1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통일의 꽃 임수경 님이 사회를 맡고 가수 김광석 님, 권진원 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시간동안 자리를 뜨지않고 목요집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 2 4 : •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인 태재준(전대협 6기 의장)님 외에 5명의 양심수가 소내처우개선 문제로 단식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들이 군산에 지원하러 내려가셨습니다.
- 황석영씨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 2 5 : • 미국수도장로교회 사마리아선교회 김영자 회계님이 한국에 오셨다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월 후원금 500\$와 출소하신 박종린 선생님께 드리는 성금 100\$ (김영자 님)와 김선명 선생님 석방을 촉구하는 청와대에 보내는 엽서, 그리고 김인수 선생님과 후원회에 보내는 편지를 전해주셨습니다.
-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 2 6 : • 군산교도소 문제가 해결되어 어머니들 상경하시고 양심수 모두는 단식을 풀었습니다.
- 2 7 : • 춘천 [마리아의 집] 김윤정 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 떠주신 무릎덮개와 푼돈모아 산 양말, 수건등을 장기수 선생님께 보내달라며 정성스레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내오신 편지가 눈물나게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제5차년도 10회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복지기금 사용문제와 오는 4월에 있는 제6차년도 양심수후원회 총회준비에 대한 문제, 양심수 면회문제 그리고 산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2 8 : • [후원회소식] 28호, 950부를 발송하였습니다. 홍전영, 한금주, 유성에 회원이 함께 애썼습니다.

- 고려병원에서 투병중인 김남주 시인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 민중탕제원, 왕영안 선생님 댁에 구정인사를 갔습니다.
- 2 9 : • 박용길 장로님댁에 설인사를 다녀왔습니다.
- 수유리 만남의 집에 여러 회원들과 함께 새배를 하러 갔습니다.
- 2 10 : • 권양섭 선생님 댁, 설인사를 다녀왔습니다.
- 2 11 : • 지난해 성탄절때 출소하신 박종린 선생님이 살고 계시는 무안 용학교회에 인사차 다녀왔습니다.
- 이경구, 김해섭 선생님께 각각 설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 2 13 : • 새벽 2시 40분, 민족시인 김남주 시인이 운명하셨습니다. 고려병원에 빈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생전에 시인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많은 이들의 조문이 잇달았습니다.
- 2 15 : • 늦은 7시, 경기대에서 민족시인 고 김남주 님 추모의 밤이 있었습니다.
- 미국에 계신 NAM.E 님께서 편지와 200\$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2 16 : • '민족시인 고 김남주 선생 민주 사회장'이 8시 경기대 추모제에 이어 전남대 노제를 마치고 광주 망월동 5.18묘역에서 하관식이 있었습니다. 김 시인은 광주 영령들 곁에 영원한 안식처를 마련하셨습니다.
- 양심선언 군인전경 박석진씨가 집행유예로 출소하여 민가협 사무실에 인사차 방문했습니다.
- 2 17 : • 윤정모 님께서 보내오신 [고백 2]를 교도소에 발송했습니다.
- 민가협 목요집회가 '고 김남주 시인 추모집회'로 열렸습니다. 성남 노래마을, 고규태, 신동호 시인이 함께 하였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 2 18 : • 민족민주열사 범국민 추모사업회 집행위원회가 유가협 사무실인 한울삶에서 열렸습니다.
- 2 19 : • 민가협 장기수가족협의회 총회가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94년을 이끌어갈 회장님으로 윤혜경님(장의균님 부인)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습니다.
- 2 20 : • 2월 산행이 북한산에서 모두 47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신입회원이 함께 하였고 산에서 내려와 유인하 목사님 칠순잔치에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 2 21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주최한 '김영삼 정권의 인권정책 1년'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 황석영님 2심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국가기밀 누설(국가보안법 4조)' 혐의가 무죄로 판정났고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2 22 : •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자들' 조직사건으로 모두 20명(현역 군인6명포함)이 구속되었습니다. 조직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단지 유인물을 보았거나, 가

- 졌다든 이유만으로 구속되어 국가보안법의 횡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극단 '희망새' 단원 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되었습니다. 아직 열리지도 않은 '아침은 빛나라'라는 공연대본을 문제삼은 것인데 이것은 예술, 표현,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어 국가보안법이라는 칼날로 단죄하려는 것이어서 앞으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중 1명만 무혐의로 풀려나고 4명은 전원 구속이 되었습니다.
 - 양심수후원회 93년도 8월 ~ 12월까지의 재정에 대한 감사를 진판스님과 박창원 선생님께 받았습니다. 입금, 지출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 민가협 제9차 총회준비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무국 평가와 총회보고서 내용검토, 그리고 지방 민가협 협력문제를 토론했습니다.
- 2.23 : • 5년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장기복역 양심수 111명에게 영치금 15,000원씩을 발송하였습니다.
- [후원회소식] 29호 편집모임이 있었습니다.
 - 독일 국영방송이 민가협 사무실을 방문해 민가협 활동을 취재하고 김영삼정권 1년 소감을 인터뷰했습니다.
 - '노해투사', '희망새' 구속자 가족들이 사무실을 메웠습니다.
- 2.24 : • 민가협 목요집회가 '44년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석방'을 주제로 탑골공원앞에서 열렸습니다. 가수 송시현 님과 함께하는 거리음악제였는데 송시현 님이 '평화의 나라', '가야 할 나라', '친구여 우리가 이제' 등을 불러주셨습니다.
- 2.25 : • 단국대 법사회학회(회장:구본승) 회원 4명이 찾아와 200,000원을 회비로 더 해 주셨습니다. 힘들게 마련하여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민가협 총준위 3차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에서는 총회일자를 3월 16일(수) 오후 2시로 결정했습니다. 9차년도 사업계획을 검토했습니다.
 - 금재성 선생님 생신이었습니다. 이대팀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 2.27 : • 부산에서 김동수 선생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 이대 '87 희망찾기' 모임이 왕영안 선생님택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 윤용기 선생님 (대전교도소 복역중)택에 방문했습니다. 황영태 선생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 2.28 : • 대구에 살고 계시는 김종호 선생님택을 권양섭 선생님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새로 선생님이 살게 되신 보금자리가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서예경(도봉구 방학동), 김광운(인천시 주안동), 곽명화(인천시 만수동), 이대 “광인열전” 모임 (90 학번), 문철호(중구 옥수동), 경북대 영문과 민주동문회, 문사영(성북구 보문동), 향린교회 청년신 도회 장기수후원모임, ‘참사람의 모임’ (회장 허인천), 이현숙(전남 여수시), 김애영(종로구 체부동)

2월에 구속된 양심수

- 2 4 : 쌀 수입 개방반대 농민시위 - 윤상영(전북 익산군), 강인원(전북 남원군)
- 2 6 : 92년 전대협 조통위원장 - 김영하 (중앙대)
- 2 16 : 민정련 광주지부 사건 - 고희권(목포해고자복지투쟁위원장), 김미자(해태), 조기용(민정 련 회원), 김영기(민정련 순천지부장), 백송희(민정련 회원)
- 2 22 : 쌀 수입반대 군시위와 관련하여 - 우원택 · 장덕식(연천군 농민회)
- 2 23 : 희망새 - 김태일(예명 김민하), 이창열(기획), 조재현(연출), 송현직(데이콤 통신모임 희망터 회원)
- 2 23 : 노해투사 - 최영익(서울대), 이태성(연세대), 임현숙(명지대), 조용찬(대우조선), 주태 봉(대우조선), 조계은(노동자), 김창훈(서울지하철공사), 박상현(삼진정공), 김인숙(대 영전자), 최은하(정훈산업), 이백규(명지대), 최향숙(명지대), 박소영(명지대), 이정임 (노동자), 정재영 · 양기혁 · 신창수 · 신현재 · 한종현 · 김성필(이상 현역군인, 명지대졸)
- 2 24 : 사노맹 호남위와 관련하여 - 윤만식, 최순재(목포, 민정련 회원)

3월 산행

푸르른 짙 움터나는 삼월입니다.

3월 산행은 천정연 장기수가족후원회와
함께하는 산행입니다.

양심수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아는 모든 회원님들!
오셔서 봄의 기운을 마시고 양심수 석방을 위해
힘차게 뛰어봅시다!!

- 언 제 : 94년 3월 20일(일) 오전 10시
- 어디로 : 수락산
- 모이는 곳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 준비물 : 도시락, 회비 3,000원

◆ 양심수 후원회원을 찾습니다

온나라에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조국의 분단의 상처를 가슴 한켠에 묻어 둔 채 350여명의 양심수들은 독재시대와 다를 바 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문민정부'라는 유행어도 양심수들에게는 감옥 밖에서나 존재하는 이름일 뿐입니다.

이들 양심수들 중에는 적개는 10년, 심지어는 43년 동안이나 갇혀있는 장기수가 77명이나 됩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이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모두의 무관심과 노력부족 때문이라는 반성을하며 지난 1989년 3월 19일 150여명의 회원이 모여 첫걸음을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손길 닿지 않고, 햇빛 한 점 자유롭게 맞볼 수 없는 분들에게 감옥 밖에 사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정성과 관심, 사랑은 큰 기쁨과 삶의 희망으로 될 것입니다.

분단의 벽을 넘어 통일의 길로 가는 작은 걸음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양심수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①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② 3,40년 동안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 있던 장기수 분들에게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전개합니다.
- ③ 20~30년의 삶을 감옥에 묻어 두고 옥밖으로 나오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터전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④ 의탁할 곳이 없는 양심수, 출소장기수 분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민 주 화 실 천
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 763-2606 (F) 745-5604
☐ 110-542

□ 이용하실 송금구좌 □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신택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양심수후원)
농 협	053-01-112692	(권오현 양심수)